주일설교 요약 : 신화수

#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다니엘서 2:36-45

##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으로,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신상의 금 머리는 바벨론의 부와 바벨론 왕을 나타냈습니다. 페르시아는 재력을 상징하는 은 가슴과 팔로, 헬라는 군사력을 상징하는 놋쇠 배와 허벅지로 나타났습니다. 로마는 모든 것을 박살 내는 철 다리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들의 특징을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에 흙과 철로 이루어진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과 흙은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간의 갈등을 나타냅니다. 지금도 그렇듯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권력과 재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본문 말씀에서는 새로운 나라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잘리지 않은 뜨인 돌이 신상이 파괴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세상의 재력과 권력을 모두 부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도, 해낸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가치들이 아닌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적인 가치를 부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뜨인 돌은 신상을 모두 부수어 재처럼 만들었고, 이제는 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있는 나라입니다.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